

치과위생사의 자아존중감에 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장경애, 이희수*
신라대학교 치위생학과

Factors Affecting the Self Esteem of a Convergence Dental Hygienist

Kyeong-Ae Jang, Hee-Su Lee*
Dept. of Dental Hygiene, Silla University, Busan, 617-736, Korea

요약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에 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파악하고자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자아존중감 점수에 따른 셀프리더십과 전문직 자아개념 척도별 차이는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보다 셀프리더십과 전문직 자아개념 척도 정도가 높게 나타나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p < .001$). 자아존중감 점수에 따른 임상수행능력별 차이는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보다 임상수행능력별 정도가 높게 나타나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p < .01$). 각 요인별 상관관계는 자아존중감과 감정노동($p < .01$), 소진($p < .01$)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셀프리더십($p < .01$)과 전문직 자아개념 척도($p < .01$), 임상수행능력($p < .01$)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상수행능력정도($p < .05$)와 소진($p < .01$)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병원 내 프로그램, 교육 등이 융합적으로 이루어져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 **Key Words** : 자아존중감, 치과위생사, 감정노동, 소진, 셀프리더십, 임상수행능력

Abstract The present study analyzes the main factor having an effect on the convergence dental hygienist's self-esteem through the survey to them. A self-leadership and professional self-conception show meaningful result with higher score in the group with higher self-respect than that of lower one ($p < .001$). Also the higher hygienist's self-esteem, the higher clinic practice ability($p < .01$). There is negative correlation with self-esteem in emotional labor($p < .01$) and exhaustion($p < .01$). However, the positive correlations are presented in self-leadership($p < .01$), professional self-conception($p < .01$) and clinic practice ability($p < .01$) with self-respect. The factors influenced on self-esteem are clinic practice ability($p < .05$) and exhaustion($p < .01$). In results, the organized convergence program and education considering self-esteem in the hospital should be accomplished systemically to enhance the clinic practice ability of each hygienist.

• **Key Words** : Self-Esteem, Dental Hygienist, Emotional Labor, Exhaustion, Self Leadership, Clinic Practice Ability

*교신저자 : 이희수(arj1225@naver.com)

접수일 2015년 4월 24일

수정일 2015년 6월 29일

게재확정일 2015년 8월 20일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사회에서 의료계열 분야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병원의 다양화와 대형급 병원들이 많이 생겨나고 고객들이 원하는 의료 서비스 조건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더불어 환자들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되기 위해 서비스 관리차원에서도 의료진과 직원들의 많은 노력과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환자들에게 만족과 친절을 제공하기 위해 각 병원 내에서도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 교육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치과위생사의 업무 비중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병원은 경영 차원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진료 보조 업무뿐만 아니라 환자 관리, 상담 능력 등 많은 영역에서 치과위생사로서 직무수행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병원 내부의 서비스 관리 차원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직원 개개인의 능력도 불가피해졌다. 어느 누구든 어떠한 일을 수행함에 앞서 개인의 기본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인격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자아존중감을 들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개인의 사적인 결과로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얼마나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게 된다. 이는 자기에 대한 정서를 발견하고 지속시키므로, 심리적으로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역이 된다[1]. 개인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가치를 더하고 직업을 통해 성취감을 얻고, 그 성취감은 직업의 확신과 발전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2].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 생활을 함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치과위생사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3]. 하지만 현실상 모든 환자에게 만족된 서비스를 매번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환자의 다양한 요구에 매사 자기 감정을 숨기고 긍정적인 감정만 드러내야 하는 일명 감정노동이 심화되고 있다. 예전에는 치과가 치료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환자 중심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서비스직인 호텔직, 승무원, 백화점 직원 등의 감정노동에 못지않게 치과위생사의 감정노동도 증가하고 있다.

감정노동이 증가되면 일을 함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소진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아졌다.

소진은 전문직 종사자에게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스트레스의 반응물로, 직무수행을 위해 고객과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까지 개입하게 된다고 한다[4]. 스트레스의 증가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 및 직무수행을 할 때 환자에게도 부정적인 결과와 직업에 대한 불만을 초래하게 된다. 치과위생사는 치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높이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하므로 감정노동과 소진의 증가에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5]. 또한 의료 환경이 환자 중심으로 변화되어가면서 소수의 관리자와 리더만으로 조직의 전망과 목표를 달성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6]. 이에 셀프리더십과 전문직 자아개념의 확립이 필요해졌다. 이와 관련하여 조직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리더십이 필요로 하게 되고 더불어 나아가 스스로 어떠한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인 셀프리더십에 관심이 증대하게 되었다. 셀프리더십은 스스로의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되는 행동, 사고방식 그리고 감정 등에 중점적으로 맞춘 리더십으로 스스로에게 주도적이며 임무에 있어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치과위생사의 기본적인 행동으로 요구되고 있다[7].

치과위생사는 높은 지식과 기술 및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치과위생사 자신이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수립되어야 한다[8]. 이런 전문직 의료 종사자의 직업인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신적 개념을 전문직 자아개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일 때 전문직 의료 종사자의 직무 수행함에 있어 크게 상반되는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전문직 자아개념이 확립되어 있을수록 임상 업무에 대한 기대도 증가된다. 하지만 병원 특성상 치과위생사의 직무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임상 경력에 따라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다르기 때문에 수준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9].

치과위생사들의 업무 범위가 가중되고 다양한 환자들의 상태를 마주하고 상대하기 때문에 치과위생사들도 수준 높은 직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셀프리더십 등 많은 능력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치과위생사는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이 밑바탕 되어야 하며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에 관해 담당하는 구강보건 전문가로서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다[3].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직무수행에 관하여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 할 수

있고, 감정노동, 소진(burn out), 대처유형, 전문직 자아개념, 임상수행능력 등 여러 요인에 많은 영향이 가해짐으로써 직무 수행에 있어 능률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들의 감정노동, 소진, 이직의도 등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졌지만[10,11,12], 치과위생사들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여 치과위생사가 임상에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융합적인 프로그램 적용에 기초자료를 얻고자 시행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치과위생사들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자아존중감에 따른 감정노동, 소진, 대처유형, 셀프리더십, 전문직 자아개념 척도와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치과위생사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바탕으로 임상에서 환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 및 임상 수행 능력을 증대 시킬 수 있는 융합 프로그램 개선 방안 등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연구진행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1041449-201502-HR-003)을 받았다.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숙지한 치과위생사들에게 배포되었고, 2015년 2월 28일부터 2015년 3월 28일까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일부 치과 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를 작성하고,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지에 응답하게 한 후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조사대상자 270부 중 260명이 응답하여 96.3%의 응답률을 나타내었고, 그 중 설문지의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를 6부를 제외한 254명(97.7%)을 최종 분석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감정노동

Morris and Feldman[13]이 개발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정노동의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노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2.2 소진

Maslach and Jackson이 개발한 MBI(Maslach Burnout Inventory)를 최[14]가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2.3 대처유형

Lazarus and Folkman이 개발한 도구를 한과 오[15]가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처유형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2.4 자아존중감 정도

Rosenberg가 개발한 측정도구에 서[16]의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2.2.5 셀프리더십 정도

Manz and Sims가 개발하여 김[17]이 수정 보완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2.2.6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

Arthur가 개발하고 서[18]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2.7 임상수행능력 척도

권[19]이 사용한 임상수행능력 도구에서 수정 보완하여 세부요인을 포함하여 총 8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강보건교육자, 치과진료협조자, 예방처치자, 병원관리자의 역할로 4영역의 점수를 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 척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WIN(ver.21.0)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05에서 검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는 Duncan을 실시하였고 유의수준은 .05로 분석하였다. 자아존중감 점수에 따른 감정노동, 소진, 대처유형, 셀프리더십, 전문직 자아개념 척도별 차이를 보기 위해 독립 t-test검정을 실시하였고,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는 자아존중감 0.82, 감정노동 0.81, 소진 0.83, 대처유형 0.81, 셀프리더십 0.86,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 0.88, 임상수행 능력 척도에서 구강보건교육자 능력 0.94, 치과진료협조자 능력 0.95, 예방치치자 능력 0.96, 병원관리자 능력 0.94로 모든 요인의 신뢰도 계수가 0.6 이상으로 나타나 설문도구의 내적일치도가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는 <Table 1>과 같다. 연령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는 30세이상 3.86점, 20~30세미만 3.76점, 25세미만 3.60점순으로 나타났고, 결혼상태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는 기혼이 3.89점, 미혼 3.71점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는 대학원졸이상 4.18점, 대학교졸업 3.80점, 전문대졸업 3.71점순으로 나타났고, 종교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는 기독교 3.78점, 무교 3.73점, 불교 3.71점순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는 3~5년미만 3.80점, 5년이상 3.78점, 3년미만 3.62점순으로 나타났고, 직위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는 실장 4.02점, 사원 3.69점, 팀장 3.62점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Self-esteem differences in general characteristics, N=254

	characteristic	N	Mean±SD	ρ
age(year)	<25	67	3.60±0.46 ^a	.019
	20~30	146	3.76±0.49 ^{ab}	
	≤30	41	3.86±0.51 ^b	
marital status	unmarried	225	3.71±0.48	.077
	married	29	3.89±0.53	
educational	college	205	3.71±0.49 ^a	.063

level	university	44	3.80±0.49 ^a	
	master or higher	5	4.18±0.33 ^b	
religion	christianiy	42	3.78±0.55	.950
	catholic	15	3.69±0.44	
	buddhism	41	3.71±0.54	
	other	3	3.83±0.31	
	shamanism	153	3.73±0.47	
working experience	<3	85	3.62±0.45 ^a	.034
	3~5	83	3.80±0.53 ^b	
	≤5	86	3.78±0.48 ^b	
title	genenal dental hygienists	172	3.69±0.49 ^a	.001
	team Leader	36	3.62±0.44 ^a	
	head of a department	34	4.02±0.45 ^{ab}	
	other	12	3.87±0.46 ^b	

3.2 자아존중감 점수에 따른 감정노동, 소진, 대처유형별 차이

자아존중감 점수에 따른 감정노동, 소진, 대처유형별 차이는<Table 2>와 같다. 자아존중감 점수의 평균값인 3.7을 기준으로 낮은 그룹과 높은 그룹으로 나누어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 점수가 낮은 그룹이 높은 그룹보다 감정노동($p<.05$)과 소진 정도($p<.001$)가 높게 나타났고,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보다 대처유형 정도($p<.05$)가 높게 나타났다.

<Table 2> Emotional labor, exhaustion, coping type, differences in self-esteem scores N=254

	self esteem (Mean±SD)		t	ρ
	low group (N=122)	high group (N=132)		
emotional Labor	3.20±0.55	3.03±0.57	2.52	.012
exhaustion	2.96±0.33	2.64±0.39	7.04	$p<.001$
coping type	3.21±0.30	3.29±0.33	-2.01	.045

** $p<.01$, * $p<.05$

3.3 자아존중감 점수에 따른 셀프리더십과 전문직 자아개념 척도별 차이

자아존중감 점수에 따른 셀프리더십과 전문직 자아개념 척도별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셀프리더십 점수의 평균값인 3.7을 기준으로 낮은 그룹과 높은 그룹으로 나누어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보다 셀프리더십과 전문직 자아개념 척도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p<.001$).

(Table 3) Self-leadership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of the self-esteem scale score differences. N=254

	self esteem (Mean±SD)		t	p
	low group (N=122)	high group (N=132)		
self leadership	3.44±0.38	3.65±0.43	-4.08	$p<.001$
professional self-concept	3.12±0.31	3.39±0.40	-6.05	$p<.001$

** $p<.01$

3.4 자아존중감 점수에 따른 임상수행능력별 차이

자아존중감 점수에 따른 임상수행능력별 차이는 <Table 4>와 같다. 자아존중감 점수의 평균값인 3.7을 기준으로 낮은 그룹과 높은 그룹으로 나누어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보다 임상수행능력별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p<.01$).

(Table 4) Self-esteem score according to a clinical practice ability by difference N=254

	self esteem (Mean±SD)		t	p
	low group (N=122)	high group (N=132)		
the oral health educator	3.51±0.44	3.71±0.48	-3.38	.001
a helper for dental work	3.66±0.51	3.93±0.49	-4.4	$p<.001$
preventive treatment	3.61±0.49	3.94±0.52	-5.18	$p<.001$
a hospital administrator	3.52±0.47	3.82±0.49	-4.97	$p<.001$

*** $p<.001$

3.5 자아존중감, 감정노동, 소진, 대처유형, 셀프리더십 및 전문직 자아개념 척도의 상관관계

각 요인별 상관관계는 <Table 5>와 같다. 자아존중감과 감정노동($r=-0.168, p<.01$), 소진($r=-0.471, p<.01$)의 상관관계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자아존중감과 셀프리더십($r=0.321, p<.01$), 전문직 자아개념 척도($r=0.436, p<.01$)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감정노동과 소진($r=0.431, p<.01$)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

고, 소진은 대처유형($r=-0.231, p<.01$), 셀프리더십($r=-0.361, p<.01$), 전문직 자아개념 척도($r=-0.615, p<.01$)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대처유형과 셀프리더십($r=0.499, p<.01$), 전문직 자아개념 척도($r=0.323, p<.01$)는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셀프리더십과 전문직 자아개념 척도($r=0.510, p<.01$)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Table 5) The Interrelation between each factor

characteristic	self esteem	emotional labor	exhaustion	coping type	self leadership	professional self
self esteem	-					
emotional labor	-.168**	-				
exhaustion	-.471**	.431**	-			
coping type	.119	0.029	-.231**	-		
self leadership	.321**	-0.036	-.361**	.499**	-	
professional self	.436**	-0.078	-.615**	.323**	.510**	-

** $p<.01$

3.6 자아존중감과 임상수행능력 세부 요인별의 상관관계

자아존중감과 임상수행능력 세부 요인별의 상관관계는 <Table 6>과 같다. 자아존중감과 구강보건교육자 능력 정도($r=0.265, p<.01$), 구강보건진료협조자 능력 정도($r=0.324, p<.01$), 예방처치자 능력 정도($r=0.330, p<.01$) 및 병원관리자 능력 정도($r=0.348, p<.01$)는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구강보건교육자 능력 정도와 구강보건진료협조자 능력 정도($r=0.713, p<.01$), 예방처치자 능력 정도($r=0.644, p<.01$) 및 병원관리자 능력 정도($r=0.696, p<.01$)는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치과진료협조자 능력 정도와 예방처치자 능력 정도($r=0.785, p<.01$) 및 병원관리자 능력 정도($r=0.782, p<.01$)는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예방처치자 능력 정도와 병원관리자 능력 정도($r=0.712, p<.01$)는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Table 6> Self-esteem and clinic practice ability by detailed factors of correlation

characteristic	self esteem	the oral health educator	a helper for dental work	preventive treatment	a hospital administrator
self esteem	-				
the oral health educator	.265*	-			
a helper for dental work	.324*	.713*	-		
preventive treatment	.330*	.644*	.785*	-	
a hospital administrator	.348*	.696*	.782*	.712*	-

**p<.01

3.7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7>과 같다.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수로 하고 감정노동, 소진, 대처유형, 셀프리더십, 전문직 자아개념 척도와 임상수행능력 정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진($\beta=-0.319, P<.01$)과 임상수행능력($\beta=0.172, p<.05$)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Table 7> Factors affecting self esteem

independent variable	B	S.E.	EXP(β)	p
constant	3.679	0.535		<.001
exhaustion	-0.397	0.097	-0.319	<.001
clinic practice ability	0.188	0.072	0.172	.010

F=16.950, $p<.05$, $R^2=0.292$

The data were analysed by the liner regression analysis. Do not show variables that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p<0.05$).

4. 논의

최근 급격한 의료 발달로 인해 구강건강관리 수준에도 관심이 증가되면서 치과위생사는 치위생의 현대화적 변화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모두 갖춘 전문인으로서의 그

에 맞춰 수행과 그 역할이 더욱 크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20]. 이로 인해 치과위생사는 전문적인 구강보건인력으로서의 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도 필요하지만 개인의 자아존중감이 뒷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들의 자아존중감에 따른 감정노동, 소진, 대처유형, 셀프리더십, 전문직 자아개념 척도, 임상수행능력정도 차이를 파악하고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평균점수는 3.7점으로 김과 김[21]의 연구에서 나타난 치과종사자의 자아존중감 평균점수 3.41점과 비교했을 때 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30세 이상(3.86점), 기혼 여성(3.89점)이면서 대학원 졸업이상(4.18)의 학력 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30세 이상(3.45점), 기혼여성(3.40점)보다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냄을 알 수 있다[21]. 근무경력으로는 3~5년 이상, 직위는 실장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3~5년 경력에서는 많은 임상적 업무를 배우고 습득하며 직급이 있을수록 자신의 위치에 대한 책임감이 존재하므로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자아존중감 점수에 따른 감정노동, 소진, 대처유형별 차이에서 자아존중감 평균점수 3.7점을 기준으로 낮은 그룹과 높은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그룹일수록 감정노동, 소진 점수는 낮게 나타났고, 대처유형은 높게 나타났다. 정수빈 등[22]의 연구에서 임상치과위생사의 감정노동의 영향에 대해 알아본 결과 감정노동이 높을수록 소진과 이직의도가 높았고 직무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감정노동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증가하고 결국 조직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여 이직의도가 높아졌을 것으로 해석 하였다[22].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을 자아존중감에 비교하였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치과위생사의 감정노동, 소진, 대처유형 등을 느끼는 정도의 결과는 아니지만 자아존중감 점수의 차이에 따라 감정노동, 소진, 대처유형별 차이는 나타나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은 평소에 모든 생활을 가치 있고 보람 있다고 생각하면서 매사에 자신감 넘치게 행동하기 때문에 원만한 사회생활을 함과 아울러 활발한 삶을 지낸다고 하였다[23]. 이에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고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긍정적인 사고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생

각된다. 이에 보건의료 관련 사회조직에서는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실시한다면 업무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자아존중감 점수에 따른 셀프리더십과 전문직 자아개념 척도, 임상수행능력별 차이에서 자아존중감 평균점수 3.7점을 기준으로 낮은 그룹과 높은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그룹일수록 셀프리더십, 전문직 자아개념 척도, 임상수행능력 점수는 높게 나타났다. 강윤숙 등[24]의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다고 나타났고, 김명숙[25]연구에서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고, 치위생 교육적 측면에서는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치위생 실무 측면에서는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보다 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게 형성된 사람일수록 업무에 있어서 자신감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의지, 업무수행능력 등의 직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각 요인별 상관관계를 보면 셀프리더십과 전문직 자아개념 척도($r=.510, p<.01$), 셀프리더십과 대처유형($r=.499, p<.01$), 전문직 자아개념 척도와 자아존중감($r=.436, p<.01$)의 관계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소진과 전문직 자아개념 척도($r=-.615, p<.01$), 소진과 자아존중감($r=-.471, p<.01$)의 관계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소진을 높게 느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 척도, 자아존중감은 낮게 나타났다. 성미혜[26]연구에서는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자아존중감과 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고, 전과 성[27]의 연구에서 응급실 간호사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소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전문직 자아개념 척도, 셀프리더십, 대처유형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판단력에 긍정적인 도움이 되고 소진과 감정노동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를 감소시키며 한 조직의 구성원으로 직무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된다.

자아존중감과 임상수행능력 세부 요인별 상관관계를 보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치과위생사로서의 역할

을 잘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병원경영과 관련이 있고 상담, 환자 응대 및 관리 등 모든 면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진과 임상수행능력으로 나타났다. 정과 한[28]의 연구에서는 호스피스 간호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소진과 임상경력으로 나타났다. 또 한과 박[29]의 연구에서 종합병원 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셀프리더십이 가장 높은 예측력을 보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직무수행을 잘 수행하고 셀프리더십이 높았으며 자신의 직업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기에 비슷한 맥락으로 분석된다. 그만큼 이제는 구강보건 전문가로서 지식과 기술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자아존중감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치과위생사들이 직무수행을 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부산·경남 일부 지역에만 이루어져 전체 치과위생사로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는 점으로 후속 연구에는 전국적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더 많은 대상자와 연령층, 심층 있는 연구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세부적인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비교·분석하여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치과 병·의원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임상수행능력과 업무의 소진을 낮추기 위해 조직 구성원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도록 뒷받침 되는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병원 내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높여, 감정노동과 소진을 낮추고, 업무 대처유형, 셀프리더십, 전문직 자아개념 척도를 높여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아가 치과위생사의 임상수행능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2015년 2월 28일부터 2015년 3월 28일까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일부 치과 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254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에서 연령($p<.05$), 근무경력($p<.05$)과 직위($p<.01$)에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둘째, 자아존중감 점수에 따른 감정노동, 소진, 대처유형별 차이는 자아존중감 점수가 낮은 그룹이 높은 그룹보다 감정노동($p<.05$)과 소진 정도($p<.001$)가 높게 나타나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보다 대처유형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p<.05$).

셋째, 자아존중감 점수에 따른 셀프리더십과 전문직 자아개념 척도별 차이는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보다 셀프리더십과 전문직 자아개념 척도 정도가 높게 나타나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p<.001$).

넷째, 자아존중감 점수에 따른 임상수행능력별 차이는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보다 임상수행능력별 정도가 높게 나타나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p<.01$).

다섯째, 각 요인별 상관관계는 자아존중감과 감정노동($p<.01$), 소진($p<.01$)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셀프리더십($p<.01$)과 전문직 자아개념 척도($p<.01$)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자아존중감과 임상수행능력 세부 요인은 구강보건교육자($p<.01$), 치과진료협조자($p<.01$), 예방처치자($p<.01$), 병원관리자($p<.01$)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여섯째,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상수행능력정도($p<.05$)와 소진($p<.01$)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병원 내 프로그램, 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필요하며, 많은 방안들이 모색되어 소속감을 증가시키며, 스스로의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주어야 한다. 나아가 병원 내 임상수행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융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H. K. Lee, N. S. Kim "The effects of self-esteem on job-seeking efficacy of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 12, No. 2, pp. 327-334, 2012.
- [2] Y. M. Kwon, E. J. Yeun, "A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13, No. 3, pp. 285-292, 2007.
- [3] J. S. Kim, Y. S. Won, S. Y. Park, "A study on self-esteem and turnover intention according to dental hygienists in part of Jeonbuk a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 12, No. 2, pp. 307-315, 2012.
- [4] S. Y. Kang, "Impact of Nursing Students' Emotional Labor on Burnout during Nursing Practice in a Hospital: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21, No. 1, pp. 77-87, 2015.
- [5] M. Y. Gwon, M. H. Jung, "Study of Dental Hygienist's Stress Degree and Adaptation Method",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 4, No. 3, pp. 133-140, 2004.
- [6] H. J. Song, "The Effects of Clinical Nurses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Skill on Self-Leadership and the Quality of Nursing Service",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2014.
- [7] H. J. Park, "Correlation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21, No. 2, pp. 227-236, 2015.
- [8] K. S. Kim, M. S. Yu,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the Practice Performance as Dental Hygienist",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 4, No. 3, pp. 111-115, 2004.
- [9] S. Y. Ahn, B. K. Oh, S. H. Hwang, Y. S. Yoo, S. K. Kim, B. W. Kang, S. M. Lee, "Some dental hygienist by career expectations regarding clinical work done in the field of business studi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 13, No. 4, pp. 543-553, 2013.
- [10] S. U. Yoon, J. S. Kim, "Relations between

- emotional labor and job stress among some dental Hygienis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 11, No. 2, pp. 179-188, 2011.
- [11] Y. S. Lee, J. H. Jang, A. E. Moon, “The effects of emotional labor and stress on job satisfaction in oral health professiona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 11, No. 5, pp. 823-831, 2011.
- [12] G. P. Kim, J. Y. Lee, B. C. Yu,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and occupational stress of dental counselor”,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 13, No. 5, pp. 727-37, 2013.
- [13] J. A. Morris, O. C. Feldman, “The dimensions,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emotional labor”,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21, No. 4, pp. 986-1010, 1996.
- [14] H. Y. Choi, “Perfectionism Tendency, Social Support, and Burnout Among Counselors”, Department of Counseling of the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2002.
- [15] K. S. Oh, J. S. Han, “Stressful Life Events, Health Symptoms, Social Support and Coping in Early Adolescents”, *Journal of Academy of Nursing*, Vol. 20, No. 3, pp. 414-429, 1990.
- [16] B. M. Seo, M. J. Park, “Factors Affecting Clinical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8, No. 4, pp. 149-161, 2014.
- [17] H. S.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Self-Leadership and the Job Satisfaction at Secondary Schools”, Education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ongsil University, 2002.
- [18] W. H. Seo, “Nursing Collega Students’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Their Satisfaction with Clinical Nursing Practicum”,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2006.
- [19] S. B. Kwon, “The Effects of Comprehensive Dental Hygiene Curriculum on the Professional Roles Improvement of Dental Hygienists”,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Dankook University, 2010.
- [20] K. H. Park, H. J. Choi, “Correlations of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 15, No. 2, pp. 279-86, 2015.
- [21] K. M. Kim, C. H. Kim, “A Study on the job Satisfaction and Self-esteem of Dental Personnel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 3, No. 2, pp. 71-76, 2003.
- [22] S. B. Jeong, E. M. Choi, J. S. Choi, “The effects of emotional labor on burnout, turnover intention, and job satisfaction among clinical dental hygienis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Vol. 38, No. 1, pp. 50-58, 2014.
- [23] Rosenberg: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 Inc 1979.
- [24] Y. S. Kang, Y. J. Choi, D. L. Park, I. J. Kim, “A Study on Nurses’ Self-Leadership, Self-Esteem,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6, No. 2, pp. 143-151, 2010.
- [25] M. S. Kim,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in their Major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17, No. 2, pp. 159-167, 2011.
- [26] M. H. Sung, “Factors Influencing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18 No. 1, pp. 18-24, 2012.
- [27] Y. J. Jun, M. H. Sung, “Effects of Traumatic Events, Compassion Fatigue, Self-Esteem, and Compassion Satisfaction on Burnout of Nurses in Emergency Department”,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 23 No. 2, pp. 80-88, 2014.
- [28] B. Y. Chung, J. Y. Han, “Influential Factors Related to Job Satisfaction in Hospice Nurses: Focus on Emotional Labor and Burnout”, *J Korean*

- Acad Nurs Adm, Vol. 20 No. 3, pp. 322-331, 2014.
- [29] Y. H. Han, Y. R. Park, " Effects of Self-leadership and Job Involvement on Clinical Competence in General Hospital Nurses", J Korean Acad Nurs Adm, Vol. 19 No. 4, pp. 462-469, 2013.

저자소개

장 경 애(Kyeong-Ae Jang) [정회원]



- 2008년 2월 : 조선대학교 구강보건학 전공(보건학석사)
- 2011년 2월 : 고신대학교 구강보건학 전공(보건학박사)
- 2011년 3월 ~ 2012년 2월 : 동의대학교 치위생학과 전임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신라대학교 치위생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공중구강보건학, 구강보건교육학, 구강영양학

이 희 수(Hee-Su Lee) [정회원]



- 2013년 2월 : 부산여자대학교 치위생과 (보건학사)
- 2014년 3월 ~ 현재 : 신라대학교 치위생학과 석사과정

<관심분야> : 구강보건교육학, 예방치과학